

## ‘실업자채용’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해야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27일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공고,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는 올해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용일 전 1년 이내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이중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현재 실업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해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부터로, 해당 사업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다만, 올해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도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 [칼럼] 터질 게 터졌다, 문화예술인산시장

27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304호 조형우 형사 4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화예술인산시장 지인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리고 윤 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넘겨준 문화예술인산시장 지인인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 A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방선거 당시 대한민국 정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당시 야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 그대로 더불어 얻은 권력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렸고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나 다름 없었다.

후보자들의 감상이나 자질은 두 번째이고 전국 시·군·구는 물론 광역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판세는 이미 대세였다. 물론 그중에는 인물들이 실을 후보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후보들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자리에 앉았다.

폐단은 본격적인 급물살을 탔다. 대표적으로 문화예술인산시장의 발매는 행보가 자질 부족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당선되지 못한 지명자 문화예술인산시장의 해의 출장은 코로나19가 상륙하기까지 2년 동안 11차례나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정국한 시기에 두 번에 불과한 시정 해의 출장으로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체중의 이러저러한 명분은 그 어떤 단체장도 흉내 내지 못할 만 큼의 추종을 불허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청년 마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만 39세)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 산골오지 '경북 영양군'의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도와주세요

코로나19사태로 영양산나물의 판로가 막혀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농가도 듣고 몸에 좋은 청정지역 영양군의 산나물 드시고 코로나19도 이겨내요!

## 2021.4.21 ~ 5. 21

영양군의 산나물은 4월 21일부터 사이트 및 네이비스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사이트](#)




# 경북도의회 김시환 도의원, “통합신공항, 국제 허브공항으로 2028년에 조속히 개항해야” 고성군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

##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에 따른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 교육행정 통합 대비책 마련 절실

김시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2)은 4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제 32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 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행정 통합 △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은 당초 개항 시기(2023년)보다 5년이나 지체된 2028년에 개항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통합신공항의 활주로 길이와 민간공항 부지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신공항을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활주로(4,000m ~ 3,700m)와 적정 민간공항 부지 확보 등을 바탕으로 국제 허브공항으로 조성하는 한편, 통합신공항이 지연 없이 2028년에 조속히 개항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지 총 2년 이상 경과

한 것으로서, 2020년 말 기준으로 경북 관내에 총 23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방치 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도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에 따른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미설치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예산을 미편성 하는 등 경북도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정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도시건설국장에게 주문했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5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통합 교육감 선출 및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 재설정 등의 교육행정 통합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행정통합과 달리 교육행정 통합은 현재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원·마산·진해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창원교육청 출범 등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 통합의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창의·사고력 중심의 교육 혁신을 통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도입 등을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나서자”고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김세기기자

고성군의회가 2021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고성군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2개 반으로 나눠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관내 주요 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4월 26일, 27일, 28일에 걸쳐 전개되는 이번 현장확인 의정활동기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성읍을 시작으로 하일, 하이, 삼산, 상리, 영현, 대가면을, 산업경제위원회는 개천면을 시작으로 영오, 구만, 회화, 마암, 거류, 동해면을 대상으로 현장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확인 의정활동 첫 날인 26일,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송학지구) 현장 의 6개소를, 산업경제위원회는 연화산도립공원 활성화 추진 현장 의 4개소를 둘러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군의회는 이번 현장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여론수렴을 통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할 예정



이다. 이번 현장의정활동 기간에 확인·점검된 각종 사안들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용삼 의장은 “이번 현장의정활동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조기 소진우려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경 편성 강력 촉구!

###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비한 추경 편성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2021. 4. 9 기준)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월에 출시 예정인 전기승용차의 보조금 신청까지 물리게 된다면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기 소진이 현실화될 경우 전기승용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서울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대로 정했음에도 실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대수는 5,067대다. 올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

하는 전기승용차 가운데 이미 4,445대(87.7%)가 접수를 끝냈다는 자료(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만 보더라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지원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와 지자체로 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에 지자체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을 합해 총 보조금 액수가 정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보조금이 충분치 못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만료될 것으로 예측되며, 신속한 보조금 정책 시기를 맞추지 못한 전기차 구입을 계획한 시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기승용차를 희망하는 서울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서울시 보조금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국비에 맞춰 시비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추경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성 의원은 “하루 빨리 정부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기차 등 무공해차 확산 목표 달성을 위

해 수요 확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서울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 영주시의회,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셀프 조사 이어져”

### 영주시 의회 전품목 의원 관련자료 조사기관 제출

영주시 의회 전품목의원은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에서도 투기의혹 해소를 위해 본인이 제일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2021세계영주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자진 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인 2014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시의원으로 활동하기 4년 전 자료를 포함해 현재까지 8년 동안의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통장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조사기관(영주경찰서, 영주시 기획예산실 감사팀)에 모두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 또한, 전의원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 서대문구, '돌봄SOS센터 서비스'의 진화 '서대문구형 퇴원환자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한다'

서대문구는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5개 병원(강북삼성, 동신, 서울직접, 세란, 세브란스)과 협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병원에 입원한 주민들은 동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퇴원 전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돌봄매니저는 신청자에게 적합한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34곳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필요한 곳을 통해 퇴원과 동시에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연계한다.

구는 이 결과를 의료기관에 알리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무료 이용 대상자들을 위한 비용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또한 사후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가 참여하는 사례회의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내 14개 모든 동주민센터에는 간호와 복지 전담 돌봄매니저가 1명씩 총 2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퇴원환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돌봄SOS센터 서비스'에는 일시재가(거동불편 주민의 일상생활 지

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 단기시설입소 등이 있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과 협력해 퇴원을 앞둔 환자에게 연계하는 것은 서대문구가 처음이다.

지난달 서대문구는 퇴원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와 인근의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서대문구형 퇴원환자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퇴원 환자 연계사업에 함께할 5개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외래 진료만 받아도 되는 주민들이 장기간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며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오대운 진료부원장은 "병원에서 환자를 지역사회로 보내드릴 때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없어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퇴원환자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만 50세 이상 주민들을 건강상태와 위기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는 것으로, 서대문구는 지난해 8~12월 시범 운영 후 올해 본격 시행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85% 이하 주민은 연간 158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상순/기자

### 금천50+센터, 중장년층 90명에게 일자리 제공

### 서울시 거주 중장년층 총 90명에게 일할 기회 제공

금천구는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금천50플러스센터'가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50+인턴십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중장년층 90명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천50플러스센터'는 경험과 역량 갖춘 사업 참여자들을 발굴해 각 활동처에 맞춤형 인력을 파견하고, 사업 참여자들에게는 활동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5월 2일까지 '50+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중장년층 4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대라면 서울시 50+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앞서 모집이 완료된 '50+보람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4월 29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발달식과 사전교육 등을 거쳐, 5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장애인시설 등에 배치되어 '지역복지사업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새로운 경험과 사회공헌의 값진 보람을 얻어 가시기 바란다"며, "인생2막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꿈꾸는 50+세대가



김미경/기자

### 노원구, 전통시장에 활력을...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

### 그간 공용 화장실 부재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서울 노원구는 이용객 및 상인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완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계중앙시장 내 상계5동 389-666번지에 위치한 고객지원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25.52㎡ 규모로 건립됐다.

2010년 전통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상계중앙시장은 그간 공용 화장실이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부족해 고객과 상인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예산 부족 등으로 난항에 부딪혔던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2019년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며 총 사업비 17억 8400만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 1층은 장애인 화장실 등 공용 화장실과 저운저장고를 갖춘 물류창고로 조성했다. 그동안 마땅한 저장 공간이 없어 대량구매가 어려웠던 상인들에게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저장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물품 구매



최광수/기자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2층은 상인회 사무실과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고객지원실로 조성했다. ▲ 3층은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 구성해 상인들의 교육과 행사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는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상인들의 교류 활성화로 상계중앙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또 다른 전통시장인 공릉동 도깨비시장도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진행 중으로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또한 구는 상계중앙시장과 공동동 도깨비시장에 각각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상계중앙시장을 찾는 주민과 상인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상인과 이용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강동구, 서울시 최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맵(Map)' 제작 배포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맵(Map)'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맵(Map)'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려는 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과 같은 장애인·임산부·어르신 등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이다.

민간 장애인단체와 구 주민들이 협업하여 커뮤니티매핑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로 만들어 4월 1일 배포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제작하여 번거롭게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스마트폰의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QR스캔 기능을 통해 지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기존 동주민센터에 배부된 복지태블릿PC를 활용하여 수어통역 화상서비스 등 장애 유형별 편의서비스를 추가 설치하는 등 '스마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서울시 최초로 제작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현황 맵'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동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 성동구, '성동 스마트패션센터'에서 영세 봉제업체 돕는다



서울 성동구는 이달 16일 성동 스마트패션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의류제조업의 공동생산 인프라를 조성, 패션제조업 도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성동 스마트패션센터는 지난해 의류제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스마트 공경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자동재단설비1) 등을 구축한 스마트 공동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소량다품종의 의류 재단을 지원한다.

자동화 장비구축으로 기존의 '재단-패턴제작-마킹'의 작업을 모두 자동재단설비로 진행하여 생산 공정 단축 및 품질 향상과 함께 소규모 의류 제조업체 작업장의 분진 감소 등 작업환경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 사업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의 의류 관련 제조업체는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그 중 순수 봉제업체는 52.8%인 914개 업체로 6,103명이 종사하는 도심제조업 중심산업이다.

이에 따라 구는 2018년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 설립 초부터 연합했던 스마트패션센터 추진으로 봉제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디자인에서 봉제까지 스마트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소량생산을 희망하는 봉제업체를 연계하는 등 영세한 의류제조업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스마트패션센터 5월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 시 봉제업체 대상 스마트 첨단 장비 및 특종 장비 활용 교육을 진행하여 봉제업체 누구나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패션제조업의 공동브랜드인 N.TREE를 통해 판매 패션제조업의 위상을 높이고, 추후 교육전시장 운영 및 판매도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영오 성동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 성동 스마트패션센터를 통해 지역 내 봉제업체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동형 패션제조업 집적지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영등포구, 올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속한 비대면서비스화, 소규모 프로그램 증가, 대면 및 비대면서비스 혼재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구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나섰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금을 받는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올해 4월 19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일 경우 해당된다. 지원되는 맞춤형 복지포

인트는 1인당 20만 원의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종사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된 복지포인트는 의료비, 가족친화 외식비, 문화생활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제출된 서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보조금 심의를 거쳐, 5월에 최종 선정 및 지원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통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민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항상 종사자들이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현장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 웅진군, “웅진자연”쇼핑몰 가정의 달맞이 수산물 상생할인 특별전

인천시 웅진군은 신선한 제철 상품 판매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웅진군 대표 농수특산물 쇼핑몰 “웅진자연”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달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산물 상생할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수산물 상생할인 특별전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수산분야 생산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소비 부진 극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웅진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에 대한 할인 판매를 지원하는 행사이다.

행사 기간 웅진군의 깨끗하고 맑은 자연 속에서 생산되는 참소라, 주꾸미, 천일엽, 놀래미는 물론 인천광역시 대표 특산물인 까나리액젓, 해삼 등 다양한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을 30%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웅진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맛과 품질이 우수한 웅진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이 정정 웅



진군의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로 찾아 김중남/기자

# 계양구, 민방위사이버교육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은 1~4년 차 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온라인교육 또는 비상소집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는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1시간의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다.

계양구 민방위 대원은 오는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양구청 홈페이지 배너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 국민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 등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방위 대원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변재현/기자

**<< 교육 진행절차 >>**

- 1) 홈페이지에서 스마트민방위교육 배너 접속
- 2) 지역선택: 인천 계양구 선택
- 3) 로그인: 휴대폰, 아이디 본인인증
- 4) 교육수강: 민방위교육 지침준수영상 1시간 시청
- 5) 교육완료: 평가70점 이상 실문 완료시 교육완료

www.cdec.kr

1522-7183

# 인천시, 문체부 공모 “의료관광 클러스터” 최종 선정

4년 연속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쾌거



4대전략 도출에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계기로 ▲비대면(온라인) 설명회 및 상담회 활성화 ▲파트너 에이전시 선정 지원을 통한 공동 상품 개발 ▲인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홍보 ▲중증환자 유치 프로젝트(자가격리 비용 지원) 시행 ▲특화 의료기술 홍보 영상 제작 확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SNS 채널 홍보 ▲사전사후 토털케어 서비스 지원 ▲인천 의료관광 브랜드 개발 ▲현지 언어 활용 신규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 개설 등의 총 9개의 사업을 신규로 개발해 수행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2021년도에는 스마트 진료료를 통한 유치 마케팅

김중남/기자

# 미추홀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28일 개소...사전 예약 필수

미추홀구는 오는 28일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예체능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만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이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백신 수급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미추홀구 75세 이상 노인 대상자는 4월9일 기준 약 2만8207명으로 현재 2만2453명이 접종을 하겠다고 하면서 동의율 79.6%를 보였다.

구는 정부의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미추홀 21개 동에서 대상자를 선

정해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할 계획이다.

백신 1차 수급량은 2700명분으로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0일까지 하루 900명 씩 순차적 접종이 시행된다.

구는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셔틀 차량을 마련하고 차량에 이동지원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는 등 수송 대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예약을 하신 분만 당일 접종이 가능하니, 예약하지 않은 분이 방문했다가 힘들게 돌아 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본



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 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 인천 동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확대 실시

인천 동구는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기관, 전문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생명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재학생 4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살예방 생명존중교육에서는 사회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아동청소년들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 및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학교, 회사 등)은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는 동구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중학생 이상 청소년 41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층인 재능대학교 학생,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 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 인천시,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최우수상’ 수상

세계최초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캠페인으로 수상 영예

인천광역시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천크래프트 캠페인으로 ‘2020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이벤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3차원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인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인천크래프트’ 캠페인이 4월 23일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김정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0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이벤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공PR대상’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전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 PR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국내 홍보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시는 23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사례발표 결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기획부터 제작, 전개에 이르기까지 트렌드와 메시지를 모두 놓치지 않은 인천시의 총출력 캠페인 진행은 지자체의 홍보 수



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시는 현실과 가상이 연결돼 있고, 두 공간이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를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도시 브랜딩 캠페인 ‘인천크래프트’를 진행했다.

인천크래프트 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 공모를 진행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인천크래프트 맵 안에 구현하는 등 주체 측의 일방적인 도시

김중남/기자

# 인천시, 문체부 공모 “의료관광 클러스터” 최종 선정

4년 연속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쾌거

인천광역시시는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한 의료관광의 수도권 편중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평가로 지원 사업 5년차를 맞이해 지난 4년간(‘17년 ~ 20년) 추진실적 및 코로나 대응 향후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로 1차 현장평가와 2차 서면평가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관 강화사업’에서도 10개 지자체와 유치가관과의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유치기관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비대면 마케팅, 타겟 다변화, 지역상생 유치업체 지원, 의료웰니스 융복합, 의료관광 수용태세 강화라는

고도화 사업과 인천 뷰티 클러스터 구축 및 브랜딩, 의료관광 체류가이드 제작 배포의 3개 신규 사업을 비롯해 인천 의료관광 통계조사와 의료관광 유치 인센티브 운영, 유치기관과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안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비대면 마케팅과, 타겟 다변화를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해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인천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유치기관과의 협업과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 부산시,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 시와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합동 단속 추진

부산시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자동차정비 조합,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의 자동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강도 방전(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특히,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장기 무단 방치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차량 적발 시에는 소유주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하거나 매각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 세종시 난폭운전·법규위반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 번호판 훼손,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3일 도담동 등 신도시 일원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시를 비롯한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시 공익재단 등이 참여해 번호판 가림,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관내 인도주행, 신호무시 등 배달이륜차의 법규위반 행

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시민 불안 해소와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욱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륜차 법규 무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지역·시간대·유형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더욱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당진시, 안전한 당진시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당진시가 이번 달 말부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카메라 범죄에 대응하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는 ‘활성기기 탐지기’와 ‘카메라 렌즈 탐지기’가 1세트 구성돼 있으며, 평소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공공화장실과 같은 공용시설에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대여 서비스 대상은 당진시민 및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일 동안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여성가족과에 예약 신청을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을 방문, 관련 서류 작성 후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시 흥승선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대여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



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 남원시, 양귀비·대마 은밀한 불법 재배 집중 단속

남원시보건소는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 남원경찰서 수사과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가족 사육 농가 및 가정 뒷밭,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행위, 밀재 사용자 등을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양귀비의 경우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이나 배탈 치료, 민간약재 등의 목적을 불분하고 재배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또는 밀재 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남원시보건소 의약검진팀(620-7935)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 평창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평창군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 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및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 감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관내 원산지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품목은 활가리비, 냉장병태 등의 수입수산물이며,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전반적인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명 농업축산과장은 “지역 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감 우려 해소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지만, 판매자 스스로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통해 관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야간 흡연 합동 단속 실시

### 식당 등 금연 구역 내 흡연 방지,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 도모

구리시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주야간 흡연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흡연 민원이 빈번해 집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 직원 2명, 단속공무원 및 금연 지도원 5명, 총 7명으로 편성하여 단속했다.

단속은 경매 시간에 맞춰 ▲주간은 9시부터 12시까지 농수산물센터 내 식당 등 금연 구역을 점검했고 ▲야간 19시부터 22시까지는 청과동 12개 품목 경매장, 적재장, 화장실을 대상으로, 심야 22시부터 06시까지 과일, 수산물 12개 품목 경매장, 적재장, 통로에 대하여 4일간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공무원에 따르면 “단속 결과

지게차 운전자 포함 14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나 신분증 미소지에 따라 향후 흡연으로 인한 위반 시 과태료 중복부과에 대해 안내를 했고, 금연 구역 내 흡연 등 공사 시설사용 위반 시 엄격한 처리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공사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매 시작 전·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금연 안내방송을 정례화하는 방안과 특히 심야 시간대에 공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유통센터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과 상인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구리시 흡연율은 16.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남자흡연율은 31.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경기도 33.9%보다 2.2%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만식기자

# 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점심 유예) 시간 변경

### 5월 1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13만원으로 인상

김천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나 화물차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을 당초 5시간(11:00~16:00)에서 2시간 30분(11:00~13:30)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50대의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중 8대가 해당되며, 이동식 차량주행형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통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 지역 가운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다른 첫 교차점까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촬영한 현장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등록하여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을 부과된다.

박정일 교통행정과장은 “단속 위주가 아닌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에 솔선수법해야 한다”며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2021년 5월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이 변경됩니다!**

**당초: 11:00 ~ 16:00** ➔ **변경: 11:00 ~ 13:30**

단속 구분	단속시간	단속 기준	점심시간 유예	비고
시 전체 (주·정차 금지구역)	CCTV(고정) 이동 07:30~18:00	동일한 장소 10분 이상 주·정차 시	11:00~16:00	평일 주말 동일
<b>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등)</b>	CCTV(고정·이동) 07:30~18:00	동일한 장소 10분 이상 주·정차 시	<b>11:00~13:30</b>	<b>-</b>
4대법원주·정차구간 (소외전, 교차로, 동통이, 버스승강장, 용인보도)·인도	주민신고(안전신문고) 24시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분 이상 주·정차 시	점심시간 유예 없음	평일 주말 동일
KTX 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구간	CCTV(고정·이동) 07:30~18:00	동일한 장소 1분 이상 주·정차 시	점심시간 유예 없음	-

구분	과태료		비고
	승용 차량(4톤 이하)	승합 차량(4톤 초과) 등	
일반지역	4만원	5만원	
소외전	8만원	9만원	
<b>어린이 보호구역</b>	<b>8만원 ⇒ 12만원</b>	<b>9만원 ⇒ 13만원</b>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1. 5.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2만원(승합자동차 등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김천시**

# 안동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실시

### 주택가, 아파트단지 이면도로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NO

안동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6월 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변 등에 세워두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른 새벽 시동을 걸면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



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1차로 이동조치와 계고장 발부 등 계고 조치를 하고, 이후 1차 위반시 5만 원, 2차 위반시 10만 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 당시 신고한 주기장

에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고와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 과천시, 시민참여형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 추진

### 24일, 시민 100여명 참여, 양재천변 산책로 꽃길 조성

과천시는 시민참여형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직접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며, 지역밀착형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속에 자연친화적 심신치유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24일에는, 사전에 참여신청을 한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부림1교와 부림2교 사이의 양재천변 산책로에 꽃길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메리골드, 페튜니아 등 초화 30,000여본을 식재하고 코스모스 씨앗 등을 파종하였다.



은 "코로나19로 답답했는데, 온 가족이 즐겁게 봄나들이 삼아 나와서, 꽃길도 조성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직접 조성한 꽃길에

다 보니, 앞으로 이 근처만 지나가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성욱/기자

# 의왕시, 아동권리 증진 업무 협약 체결

###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및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와 아동권리 증진 실현 노력

또한 4월 20일 중앙동을 시작으로, 22일 부림동, 23일 문원동, 24일 과천동 마을공동체가 마을 유휴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다.

함께 꽃길조성에 참여한 김종현 시장은 "과천시가 아름다워 질 수 있도록, 직접 꽃길조성에 나서주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아름다운 꽃길을 보며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시도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은 오는 5월 7일, 중앙동, 부림동, 문원동, 과천동, 갈현동 마을공동체와 함께 중앙공원에서 부림1교 사이의 양재천변 산책로에 꽃 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관련 대표 NGO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및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실현을 돕고자 이뤄진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 임용순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장, 최성호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는 시와 공동으로 아동권리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학부모 등 성인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지원하여 의왕시 아동의 권리증진에 기여하고, 월드비전 경기남부본부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교육 및 회의 등의 운영활동 지원으로 아동의 권리 옹호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김상돈 시장은 "수십 년간 아동의 권익옹호에 앞장서 온 두 아동 NGO 단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함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만화 살롱 '만화+버스킹' 행사 개최

한국만화박물관은 4월 28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중동 미관광장에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기획전시 '열여섯 살 이었지'와 연계한 복합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획전시 '열여섯 살 이었지'의 영감을 받아 만화+음악+퍼포먼스를 결합한 공연으로 이문세-봄바람, 러브홀릭-버터플라이, 지오디-춧불하나 등 총 3곡과 결합, 재해석한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밀집도 최소화와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12시, 14시, 16시, 18시 총 4회 버스킹 형식으로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합창은 '쌍투스 코러스'가 무용은 '초록문'이 출연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사장 이벤트로 관람객이 쓴 메시지는 '열여섯 살 이었지' 온라인 전시 방명록에 재현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전시로써 풍부하게 구현 될 예정이다.

쌍투스코러스는 1971년에 창단되어 국내 최대 규모 대학연합 쇼콰이어 동아리로 역대 누적인원이 2,000여명이 될 정도의 전통성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동아리이다.

초록문은 무용의 장르 구분을 떠나 구성원들 모두 다채로운 움직임을 중심으로 필름작업, 전시, 관객참여형 문화활동 등 다양한 융합 작업을 하고 있다.

박물관 기획전시 '열여섯 살 이었지'는 여성가족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전시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온·오프라인 모두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전시 중에 있다. 온라인 전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4개 언어로 제작돼 한국만화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박물관운영팀 김보금 팀장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한국만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장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문화의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가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제정, 운영하고 있다. 2021년 한국만화박물관의 '만화 살롱'은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 우수 기획으로 선정되어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순희/기자

**경기도 문화의 날**

**만화 X 버스킹**

거리로 나온 **만화살롱** 1st

한국만화박물관 기획전시 '열여섯 살 이었지' 연계 공연

1. 이문세 - 봄바람
2. 러브홀릭 - 버터플라이
3. 지오디 - 춧불하나

**일시** 4월 28일(수) 12.14.16.18시

**장소** 롯데백화점 미관광장

# 남양주시, 코로나19 시대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감성 휴먼터치 선보여

남양주시는 26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와 심각성을 공감하고 세대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휴먼터치 프로그램 「Life goes On : 삶은 계속 된다.」를 진행한다

먼저,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송경민 작가의 그림 동화를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 '로봇똥'을 준비했으며,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유튜브 URL을 안내하고 비대면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로봇똥'은 '누구든 서로 다르지만 자신만의 역할이 있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다'는 교훈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현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중이다.

또한, 시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 방학 특강 '자기 이해, 분노 조절과 멘탈 관리법', 청년을 위한 초청 강의 '저출산과 고령 사회가 내게 미치는 영향',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일과 가정 균형 잡기, 신박한 공간 관리법',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와 힐링 역사 체험' 등을 온·오프라인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으로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의 기회로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마음 챙김', '행복과 희망 설계'를 드리기 위해 2021년 저출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어린이날 맞아 가족뮤지컬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

**비대면 공연**

**2021. 4.28.(수)~5.5.(수) 8일간**

**YouTube URL 접속 통한 영상관람**

- ▶ 주최, 주관: 경기도 남양주시
- ▶ 제작, 문화기획: 이유
- ▶ 관람료: 무료
- ▶ 대상: 유아, 학생, 학부모 누구나
- ▶ 관람방법: 비대면 공연으로 신청하신 분을 위해 유튜브 URL 접속 통한 영상관람
- ▶ 문의: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 031) 590-4087, 4088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 영주 무섬마을 정비사업 속도...종합정비계획 문화재청 승인

# 영양군 사회적거리두기개편 시범적용 실시

## 영주시, 무섬마을 종합정비사업에 119억원 투입

소백산에서 시작된 내성천 물줄기가 유유히 돌아 흐르는 옥지 속의 섬마을, 영주 무섬마을이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경북 영주시는 무섬마을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83억원, 도비 18억원 등 총사업비 119억원을 투입해 민속마을 가치 보존을 위한 마을 보수정비와 관광자원 기반 마련 등 각종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종합정비계획은 국가민속문화마을 품격에 맞는 경관 조성과 무섬마을의 진정한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존·복원 및 정비계획 추진의 방향과 뼈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주변 관광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정비를 통한 방문객의 편의 증진 등을 종합정비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단기계획으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주차장 및 저차거리 조성 △쉽터 조성 △공공화장실 신축 △마을길 및 탐방로 조성 등의 관광객편의를 고려한 기반시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계획은 △마을식생 및 배사장정비 △전통마을과 어울리는 조형시설정비 △무섬마을 배면의 산지를 이어주기 위한 에코브릿지 설치 등 마을 경관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마을 내 가옥 정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옥 정비 예산은 종합정비계획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무섬마을을 정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무섬마을과 영주면 주변 관



광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영주 남부권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장유현 시장은 “무섬마을은 세계유산 분석사, 소수서원과 더불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기반시설이

미흡해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종합정비계획 승인을 계기로 무섬마을에 대한 보존·정비는 물론 관광자원 기반마련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영양군은 4월 26일 0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1단계) 시범적용을 실시한다.

영양군은 4월 26일 00시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수 4명으로 방역이 안정화되어있으며, 4월 23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범 적용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1단계)의 핵심내용은 ▶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전면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의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영양군은 본 기간 동안 관련협회 및 새마을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자율적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군 자체적으로

김세기기자



점검계획을 세워 방역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해 장기간 침체되었던 영양군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영양군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방역 및 점검에 더 노력하겠다고. 영양군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코로나19 없는 청정 영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세기기자

# 달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요!

# 봉화군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

## 달서구, 국제로타리 3700지구 글로벌 보조금 전달식

대구 달서구는 4월 23일 송현동 청년베이스캠프에서 월성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국제로타리 3700지구 박병수 총재를 비롯한 지역대표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로타리 글로벌 보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제로타리 재단은 글로벌 보조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보조금 사업은 국제로타리 6대 분야인 평화증진, 질병퇴치, 깨끗한 물공급, 모자보건, 교육지원, 지역경제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커피 케이터링 및 배달서비스 사업은 지역경제 개발 분야에 속한다.

달서구에서는 2019년 9월 5개 기관과 연계한 6개 보조금 사업을 발굴·신청하였으며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피 케이터링 및 배달서비스 사업이 지난해 11월 최종 선정되어 커피



배달차량, 작업장 설치, 인건비, 교육비 등의 사업비 약 1억 15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현동 청년베이스캠프 내 '#커피'를 운영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2년 이내 체인점 추가개설 및 청년 취·창업자 배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로타리 3700지구 박병수 총재는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일자리

환경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혼자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험준한 상황이 나 지역대표들과 함께 힘을 모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봉화군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천안시청에서 개최된 제6회「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시장·군수 협력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0년 7월 봉화군에서 제 5회 회의를 개최한 후 9개월여 만이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330km, 약 4조 8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설 사업으로 12개 지자체 대표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경과 보고, 협력체 회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를 점검한 뒤 중부권 교통 연계성 강화, 국토 균형발전, 유라시아 철도 연결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철도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현재 추가 검토사업 지구로 지정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반드시 사업지구로 추진될 수 있도록



300만(12개 시·군) 국민의 의지를 담은 건의문을 국토부 및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협력체는 지속적 단합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계획고시 이전인 2021년 6월 차기 회의를 개최하여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반식기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태항 봉화군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는 6월전 지역구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국회포럼을 통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것을 제시하였다.”

# 안동시 MZ세대가 주도하는 다이나믹 100년 등불기획단 2기 출범

# 대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제4기 출범

## 안동시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키운다

##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원탁회의 확산

안동시는 지난 4월 23일 '다이나믹 100년 등불기획단' 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등불기획단은 유연한 사고로 무장한 젊은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변혁의 아이디어로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문기획단 양성 프로그램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관료적 사고를 깨지 않고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MZ세대인 입사 4년 차 이하의 20~30세대 새내기 공무원 24명을 등불기획단원으로 선발해 안동시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키운다.

교육과정은 총 2년에 걸쳐 진행된다. 1년 차에는 시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을, 2년 차에는 국내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형식적인 시책개발에서 벗어나, 실무부서의 검토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유용한 시책으로 개발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등불기획단은 지난 2018년 1기를 출범하여 2년간 운영했다. 이번에



출범한 2기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정도 함께 진행한다. 앞으로 2년 동안 젊은 시각으로 안동시 미래를 열어 나갈 해법을 찾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기기자

시 관계자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MZ세대 직원들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며, “등불기획단은 시책개발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대구시는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상 황실에서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소통의 장인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이끌어갈 제4기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를 출범하고 2021년 시민원탁회의 개최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시작한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지난 7년간 총 20회에 걸쳐 7,200여 명의 시민이 지역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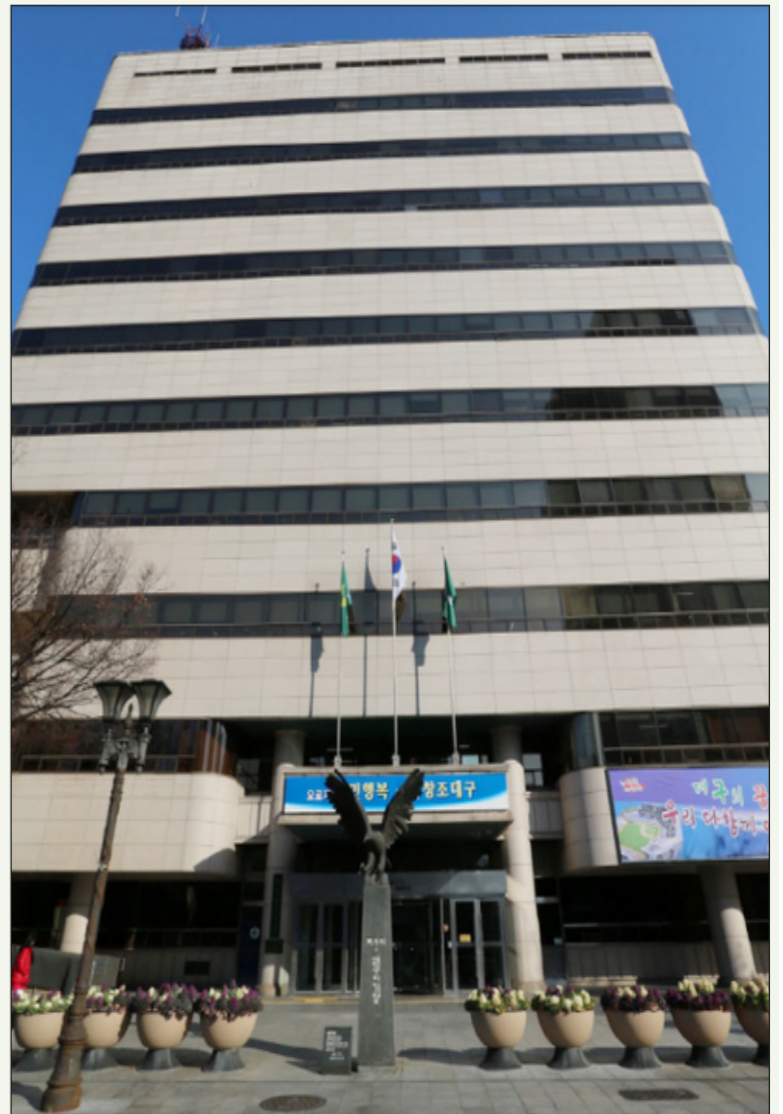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위촉직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지금까지의 원탁회의 운영 현황, 2021년 추진 방향, 그리고 차기 시민원탁회의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새롭게 구성된 제4기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는 3기 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토론, 의견표출을 바탕으로 한 속의민주주의를 운용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시민원탁회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3기 운영위원들과 함께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5차례의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중단 없는 원탁회의 개최로 시민원탁회의가 대구혁신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한 역할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소통과 공감은 대구시 모든 정책의 기본이다”며,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협치해 나가는 소통의 대구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구시민원탁회의를 잘 이끌어 주기를 4기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경상남도, 11개 유관기관과 드론산업 육성 통합 업무협약 체결

## 미래 드론산업 발전 '봄 확산'과 인력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경상남도가 26일 그랜드 엠베서더 창원호텔 2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39사단, 국정원 경남지부, 경남경찰청, 경남소방본부, 진해기지사령부, 창원시, 진주시, 고성군,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테크노파크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 드론산업 통합 드론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하였으며, 11개 유관기관에서는 박안수 39사단장, 국정원 경남지부장, 이문수 경남남도경찰청장, 김조일 경남남도소방본부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박유동 도립거창대학 총장 등 기관장 11명이 협약식에 참가했다.

협약식은 협약 추진과정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참여기관의 상호 협약체결 후 실무회의를 통한 미래 드론산업 육성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경남도와 창원시, 진주시, 고성군,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기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경남경찰청, 경남소방본부, 39사단, 진해기지사령부는 각종 재난·재난, 실종자, 자살 의심자에 대한 수색 지원 및 정보 공유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도립거창대학은 드론과 연계된 전문학위 취득 및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에 협조하며, 39사단, 국정원 경남지부, 진해기지사령부는 경남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군·경·소방 협력 클러스터 구축 운영과 인력양성 등 제반지원에 적극 협력한다고 협약내용에 담고 있다.

협약식은 경남 드론산업 육성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용화·방위산업용 드론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 확충, 인력양성 부분에 상

호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11개 유관기관은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드론 관련 다양한 행사 공동개최 및 상호교류 협력 △재난·재해 시 장비 및 통합관제 체계 운용 협력, △드론 상용화·방위산업용 목적 드론 실증 협력 △드론 전문 인력양성, △드론산업 기반구축, 기업지원 등 기타 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을 추진한다.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통합 드론 운용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며, 드론 최대 수요처인 관·군·

경·대학·소방 분야 시장을 확보해 도내기업 역량과 외부기업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협약을 계기로 경상남도의 드론산업 발전을 통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안수 39사단장은 “오늘 협약체결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이 방위산업 성장과 연계되어 스마트 국방 혁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드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고성시의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조성(드론전용 비행시험장, 무인기 통합시험 훈련기반구축,투자선도지구), 국토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 참여,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드론발전 '봄' 조성 등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미래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드론 전문인력 양성도 유관기관 간 협조하여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 사천시 공무원들,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도전 결과는?

## 지적재조사, 3D공간정보 등 공공분야 업무에 적극 활용

공무원들이 지적재조사, 3D공간정보 등 공공분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토지관리과 공무원 4명이 지난 4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드론 조종 국가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드론 국가자격은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20시간의 비행 경력과 관련 법령, 이론,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사천시는 드론을 활용해 중점업무인 측량뿐만 아니라 시의 각종 행사 때 영상촬영, 3D공간정보구축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이 강화되면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이 필수화된 것이다.

이에 토지관리과 4명의 공무원이 올해 초 드론 국가자격증 도전에 나섰다. 4개월여만에 100%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다.

시는 현재 드론 5대로 지적재조사, 영상촬영, 3D공간정보구축, 산불감시 등 각종 시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어, 재난안전과, 녹지공원과, 공보감사담당관까지 드론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도근 사천시장장은 “드론이 공공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해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시정분야에도 드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타 부서의 행정지원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을 위해 일반 직원들의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산청군 산청읍 도시재생뉴딜 추진 기틀 마련

## 옥산지구 주민들 ‘도시재생대학’ 수료

산청군이 산청읍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마치는 등 기틀을 마련했다.

군은 산청시장 상인과 마을 주민 등 20여명이 ‘2021 산청읍 옥산지구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수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3월 말부터 도시재생 공모신청을 위한 주민주도의 맞춤형 교육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수요와 역량을 고려해 옥산지역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수료식은 산청시장 변영회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수료생들은 교육과정으로 진행했던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옥산지구는 산청군청 바로 앞에 위치한 산청시장(일반근린형)을 중심으로 한마을공원과 산청버스터미널을 포함하는 산청읍 시가지다.

산청군의 중심업무 밀집지역이나 최



근 원도심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능 회복과 주민역량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군은 해당 구역 14만8530㎡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130억원 규모의 ‘2021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목표로 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 역시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사업 가운데 하나로 진행됐다.

군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제시된

마을의제와 지역현안문제를 옥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주민공동체의 의견으로 모으고 반영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산청읍 옥산지구가 산청군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창녕군, 알기 쉽고 편리한 지적공부 상용화에 앞장선다

## 구(舊)토지·임야대장 한글 고도화 사업 추진

창녕군은 100여년 전에 만들어진 구(舊)토지·임야대장에 대한 주민들의 난독을 절감(切感)하고, 행정의 신뢰 제고 및 효율적인 토지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舊)토지·임야대장의 스마트 디지털 한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구대장 한글 고도화 사업으로 고품질의 지적관련 행정서비스를 군민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가능토록 하여 토지행정에 있어 창녕군이 우위에 서서 앞으로 더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글 고도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억3500만원의 총 사업비로 국가기록원 부산 역사기록관에 보관중인 구대장(272,108면)을 고해상도 컬러이미지로 스캔 후 토지이동연혁, 소유자명 등을 한글로 변환해 디지털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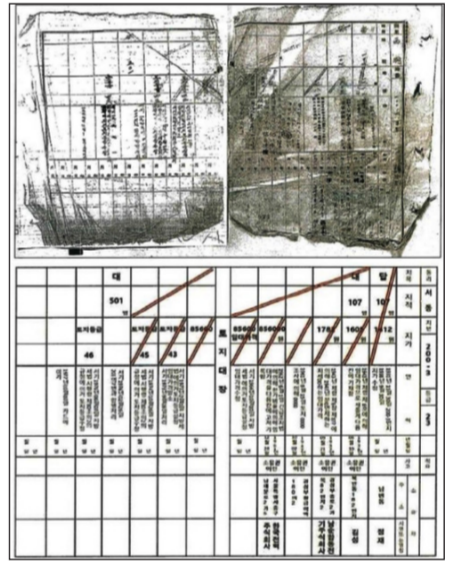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를 한글화 한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토지대장 상의 변동사항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우는 극히 드문 예로 볼 수 있

다.

한편 구대장은 1910년 일제에 의해 한자로 만들어져 1975년까지 사용된 토지·임야대장으로 토지소유권 분할,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기, 등 록사항정정 등 민원발급 및 토지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적공부를 일컫는 말이다.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구대장은 한 자음과 일본식 연호로 표기되어 있어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고 또한 소유권 변동에 따른 소유자 이력 검색이 어려워 1975년 이전 조상 소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후손들에게 자료 제공이 상당히 힘들었다.

군 관계자는 사업완료 시 그동안 저해상도 흑백 이미지로 서비스되어 왔던 구대장이 한 번에 해결되고, 어려운 한자가 한글로 변환되어 한글에 익숙한 지금 세대들과 지적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애로 해소에도 일익을 하는 등 지적 업무의 획기적인 시스템 도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일제의 잔재 청산에 기여하고, 영구보존문서인 구대장의 전산화 및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통해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 공부가 유실 될 경우, 복구 자료로도 활용되는 아주 가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부산시, '2021 실패박람회' 협약 체결

## 실패의 경험 공유와 재도전을 응원하는 '2021. 실패박람회' 온라인 협약 체결 마쳐

부산시는 시민의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자산화하여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2021. 실패박람회 온라인 협약식'을 지난 4월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참여하여 체결한 이번 협약식은 모두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볼록비대면 전자 서명으로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행사·참여기관 소개, 협약체결, 관계자 워크숍, 전문가 강연,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를 포함한 대구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박람회 형식의 행사를 진행하고, 호천마을주민협의회,

생각하는 바다 등 14개 민간·공공기관·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의 특성에 맞는 자율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패의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할 계획이다.

시는 실패경험의 공유·확산과 재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시민들과 함께 하는 속의토론 프로그램에 집중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실패사연 접수와 속의토론 주제 선정에도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내실있고 알찬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행사시기와 장소, 내용, 신청 일정 등 세부 사항은 5월 말경 행정안전부 주최 ‘실패박람회 선포식’에 맞춰서 확정하여 유튜브와 행사홈페이지,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코로나19로 힘든 부산 시민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재도전의 용기를 북돋우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온라인 비대면 행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통영이랑’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통영시는 2021년 제1차 경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관내 기업 ‘통영이랑 협동조합’이 새롭게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기 전 단계로 3년간 유지되며,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신청 가능하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기업은 인건비·사업개발비 등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지자체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지원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통영이랑 협동조합’은 2018년 7월 애함심 가득한 통영 청년들이 모여 지역민의 고용 창출과 통영의 관광·문화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통영의 섬과 문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적 색채가 포함된 투어 상품 개발과 더불어 키트를 활용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 개발·운영하며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가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20년도에는 나전칠기, 누비 등 통영 전통문화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청년기업의 우수한 자질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강현서 통영이랑 대표는 “조선업 붕괴로 일자리를 잃은 지인과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기업을 설립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예비사회적기업까지 지정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통영의 청년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전제순 도시재생과장은 “2021년



상반기 마을기업 재지정에 이어 예비사회적기업이 새로운 탄생이 코로나로 침체된 사회적경제의 활력 매개로 작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통영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민과 상생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 완주군 백신접종 속도전, 안호영 의원-박성일 군수 현장방문

# 남원시, 왕정공원 도심근린형 숲속야영장 조성

### 22일 센터 개소 후 첫 주말 맞아 행정 총지원, 정치권도 지원 약속

정부와 전북도의 신속한 백신접종 방침에 맞춰 완주군(군수 박성일)의 백신접종도 속도전에 들어갔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을 연 완주군 삼례읍 문화체육센터 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개소 후 첫 주말을 맞아 접종을 하려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졌다.

접종센터는 이날 어르신들의 발열 체크와 대상자 확인, 예진표 작성과 예진,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관찰, 확인서 발급 등 순서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회 안호영 의원과 박성일 완주군수, 김재전 군의회 의장, 윤수봉·이경애 군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어르신들의 백신접종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센터 내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한 후 접종 대기 중인 어르신들에게 "일상 회복을 위한 백신접종에 적극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접종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한다"며 "군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전 군의회 의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며 "집단면역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완주군은 23일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읍면장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완주군보건소도 자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와 전북도 방침에 맞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완주군과 보건소는 당초 오는 5월 3일까지 접종하려 했던 인원을 최대한 앞당겨 이달 28일까지 신속하게 접종하기로 했다.

특히 완주군의사회에서 의료진을 지원하고 완주군새마을회와 완주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접종 안내와 지원에 나서는 등 자원봉사의 손길을 펼쳐 신속한 백신접종에 큰



힘이 되었다.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예방접종 전주의사항을 일일이 설명하고 접종 후에는 15~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할 것과 3시간이상 주의 깊게 관찰할 것, 4주간 특별한 관심 갖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진료를 받을 것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완주군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개소 이후 어제까지 700여

명이 센터를 방문해 접종을 마쳤으며, 오늘도 790여 명이 추가로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전북도의 방침에 맞춰 당초 계획을 사흘 정도 앞당겨 신속한 접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예방접종센터는 앞으로 만 18세 이상 완주군 전체 접종인원(7만8천여 명) 중에서 올 2분기에는 75세 이상을, 3분기에는 18~64세 주민을 각각 접종을 하게 된다.

김광수기자

남원시가 왕정공원 일원에 도심근린형 숲속야영장을 조성한다.

숲속야영장은 총사업비 24억원(군특 12, 시비 12)을 투입해 남원시 산곡동 산13번지 일원에 2.8ha 규모로 조성한다.

교통산국민관광지 주차장 주변의 사유지에 기존 소나무 숲을 활용한 숲속야영장(글램핑돔, 데크사이트, 쉼터사이트)과 편의시설(화장실, 음수대 등), 데크산책로, 숲속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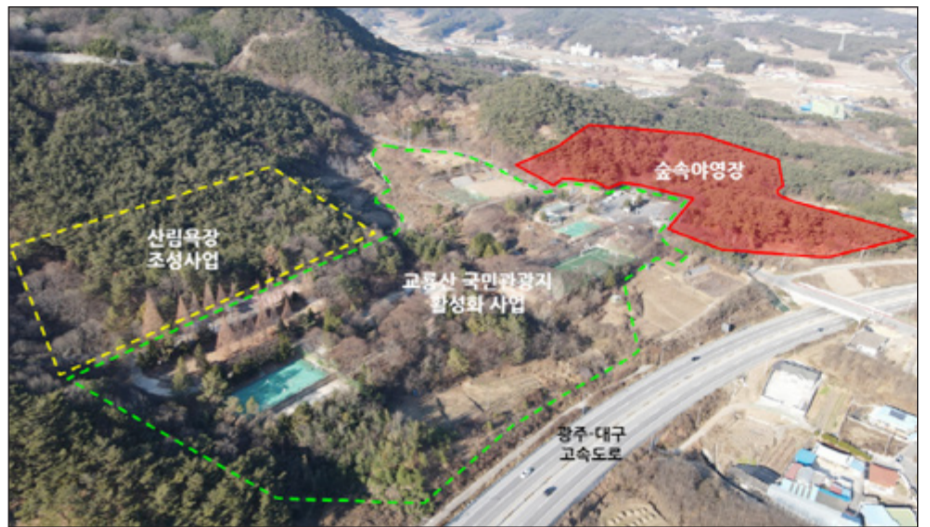
남원시는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6일 숲속야영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가

졌으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오는 7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해 '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3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산 둘레길과 산림욕장 조성, 교통산 활성화사업 등 교통산의 건강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될수 있도록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한옥마을 스탬프투어, 문화유산 코스 추가

전주한옥마을 관광을 즐기고 수공예도 체험할 수 있는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가 확대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해 골목길을 중심으로 운영한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를 올해는 전라감영과 전동성당, 오목대 등 한옥마을 인근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새롭게 추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코스별로 돌며 스탬프를 획득하고 코스 완주 시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 새롭게 추가 운영되는 문화유산 투어 코스는 풍패지관~전라감영~풍납문~전동성당~경치전~오목대 등 6곳을 순서대로 둘러보는 코스로 1시간 내외로 완주할 수 있다.

이곳들은 모두 전주한옥마을 여행객들의 필수적인 방문장소로 스탬프투어 참여자들이 더욱 늘 것으

로 예상된다.

스탬프투어 모바일 앱을 통해 체험 신청을 한 후 문화유산 투어 코스를 완주한 경우에는 전주공예품 전시관의 수공예품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마스크 줄 만들기, 부채 만들기, 한지 브로치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됐던 골목길 3개 코스를 완주해 받는 전주한옥마을 내공예 작가 기념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재미있는 전주한옥마을 컬러링북'도 받을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상 전주시민에게는 선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3개 코스, 총 21개의 스탬프존을 운영했다.

1코스는 600년 은행나무~선비골목길~승광재~오목대 단산나무~전주향교 은행나무~우물이야기~오목교로 구성됐으며 2코스는 최명희길



~한옥마을 10경 골목길~한옥마을 역사관 골목길~은행로 오목정~네모난 실개천~전주향교 골목길~오목대데크 전망대가 포함됐다.

3코스는 교동미술관~추억소환 골목길~공예한지 골목길~쌍샘과 양사재이야기~오목대수피와 원광수피~향교수피~자만벽화마을로 기획됐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투어는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문화유산과 명소에 대한 숨어있는 이야기와 다양한 모습을 즐길 수 있도록 코스가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 콘텐츠를 개발해 한옥마을의 색다른 모습을 느끼고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전북교육청 'AI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 현장 지원'

전라북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 탐험대]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별 수학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분석·처방(게임콘텐츠 등 제공) 지원 시스템으로 1:1 맞춤형 개별화 학습을 통해 초등 저학년에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똑똑! 수학 탐험대]는 EBS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기반만 확보되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학교에서는 수준별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고 가정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에 대한 연수를 도내 14개 시·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



템 적용과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학교(2교)를 운영하여 일반화 자료개발과 시스템 적용 전후 효과성, 만족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똑똑! 수학 탐험대]는 교과수업 활용 맞춤형 학습 지원 관리 시스템으로 원격·등교 연계 학습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수·학습 자료로 효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인공지능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똑똑! 수학 탐험대)이 현장에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강소연구개발특구

# 영동군 추풍령포도수출단지, 농산물 수출단지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 등급'

## 과일의 고장 위상 높여주는 숨은 일꾼, 수출참여 농가 확대하며 도약 다짐

충북 영동군 추풍령포도수출단지 충북도내 최고의 농산물 수출단지로 꼽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2021년도 충청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도 지정 농산물 수출단지 운영실태 점검·평가결과 추풍령포도수출단지가 도내 최고 점수를 얻어 "최우수 등급" 확정을 받았다.

추풍령포도수출단지(대표 김태완)는 전년 대비 수출물량 증가율 부분에서 2019년에 수출물량 11.6톤, 수출액 16만7천달러에서 2020년에는 수출물량 29톤, 수출액 44만1천달러로 150% 증가율을 보여 만점을 받았다.

전 회원 100% 수출참여로 수출 농가 비율에서도 만점을 받았으며, 또한, 수출 규모(단지 전체면적 대비 수출면적), GAP 인증 농가 비율, 공동선별 비중 항목 등에서도 각각 만점을 획득했다.

총 9개의 평가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독보적인 수출

역량을 과시했다.

추풍령포도수출단지(대표 김태완)는 2019년도에 도 지정 수출단지로 선정됐다.

과일의 고장 영동의 대표 특산물이자 긴장거리인 포도를 수출하며, 세계에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잘 알려진 사인머스켓이 주력상품이다.

2019년 수출국 베트남에 이어 2020년에는 도내 최초로 중국 수출 지정단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등 수출국 뿐만 아니라 수출량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에 따라, 인센티브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보조사업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수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 시에도 인센티브와 함께 중앙기관 표창 우선 추천 선발 기회가 주어졌다.



김태완 대표는 "포도재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포도 선별과정 및 판매유통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수출참여 농가 확대와 함께 포도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농업의 한 일꾼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 포도는 소백산맥 추풍

령 자락에 위치해 큰 일교차와 일조량이 풍부한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어 맛과 향, 당도가 뛰어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랑받으며 꾸준히 수출길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1천여ha에서 명품 포도가 재배중이다.

최만식기자

# 논산소방서, 소방드론, 화재현장 화점 파악에 효과적

논산소방서는 지난 21일 15시 48분께 연산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화재에서 소방드론을 활용해 화점을 신속 파악하여 원활한 진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화재현장에는 많은 양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있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화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신속히 소방 드론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화재 현장을 보며 화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서는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상황 시 광범위한 장소의 인명 검색이 가능하고, 재난상황을 실시간 영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 빠른 의사결정으로 효과적인 현장 지휘 및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드론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세종시 대기중 벤젠 농도 '매우 낮음'

## 이동형대기측정시스템 활용 대기질 조사...기준치 대비 6% 수준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 중 벤젠 오염도가 기준치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은 무색투명한 액체로 휘발성이 강해 기화하기 쉬우며,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약 1.5 ppb 이하다.

ppb(part per billion)는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0억분율을 의미한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미선)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을 통해 관내 읍·면·동, 대로 등에서 진행한 대기질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의, 노장, 청송, 부강, 명학, 응암, 조치원 등 산업단지 7곳과 한누리대로, 시청대로, 행복대로, 호수공원·중앙공원·수목원 주변 도로, 가람동 일대 등 주거·녹지지역 5곳 등 12곳이다.

조사는 산업단지 내 도로·대로변을 운행하면서 이동 중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상지 12곳 평균 벤젠



농도는 0.09ppb로 확인돼 기준치 대비 6%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 평균 농도는 0.10ppb였고, 주거·녹지지역 평균 농도는 0.08ppb였다.

업진균 시 환경연구과장은 "지속적인 대기질 조사를 통해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 지역과 시기를 파악하고,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세종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월 시험가동을 거쳐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벤젠, 톨루엔,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40여 종을 측정할 수 있다.

최재은기자

# '대전드림타운' 민간기업에서 공급 시작

## 관련사업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170억 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용전동 복합터미널 인근 주상복합 공동주택 부지 내에 민간에서 건설하는 '대전드림타운' 40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4월 23일 동구 용전동 77-13번지 일원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용적률 완화가 추가로 건설 가능한 85세대 가운데 40세대를 드림타운으로 건설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81.8% 완화적용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에는 드림타운을 포함한 공동주택 616세대 및 오피스텔 96실, 49층 이하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된다.

이번 용적률 완화를 통해 용전동에 공급되는 드림타운 40세대는 모두 전용면적 59㎡로서 드림타운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54㎡ 주택보다 5㎡ 더 크게 건설될 예정이며, 2025년 준공과 함께 대전시에 기부채납되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운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 공급 규모는 적지만 관련제도 마련 후 첫 적



용사례로서 공공에서 투입해야 하는 170억 원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원도심 역세권 구역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의 드림타운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드림타운은 민선7기 핵심 시민약속사업으로 "청년층 등의 주거비 경감을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실현을 목적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공급을 하고자 공공부분 2천호, 민간부분 1천호 총 3천호를 공급"하고자 한다.

고정화기자

# 서산시, 마늘 4~5월 생육관리가 수확량 및 품질 결정

## 다수확을 위한 잎마름병, 녹병 방제와 물주기 필수

서산시가 마늘이 본격 생장하는 마늘 후반기인 4~5월 마늘 생육관리와 마늘 병충해 예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마늘구가 본격 커지는 4~5월 적정한 물주기를 통해 비료와 수분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야한다고 밝혔다.

마늘은 주로 성장하는 후반기 건조할 경우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강우량을 고려해 7~10일 간격으로 30~40mm 정도씩 2~3회 정도 물주기해야 한다.

분사호스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4~5월 주로 발생해 마늘 생장을 저해하는 잎마름병과 녹병에 대한 방제에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잎마름병은 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데, 잎에 반점이 나타나고 잎 뒷면에 검은곰팡이가 생기며 급속히 확산해 수량 감소를 유발한다.

병징이 있을 경우 전용약제를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야 한다.

녹병은 주로 저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며, 특히 난지형 마늘에서 많이



발병해 잎에 황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고 나중에 잎 전체가 말라죽게 된다.

이 역시 병징이 있을 경우 적용 살균제를 7~10일 간격으로 살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마늘의 수확량과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며, "충분한 수분 공급과 생장을 방해하는 병해충 방제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은기자

# 강릉시 옥가로 테마거리 조성, 강릉역에서 일화거리가 보인다!

## 강릉역 옥거리 - 옥천 오거리 전선지중화로 도심환경 개선

강릉시는 도심 경관 개선 및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천동 옥가로 일원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전선 지중화 및 퍼스널 모빌리티 도로확충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5월 초 착공하여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강릉역 옥거리에서부터 옥천오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도로의 차선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면서 보도를 확장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도로를 확보하는 등 관광객들의 도보 동선을 옥가로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부터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강릉역과 중앙시장(일화거리)을 연결하는 테마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추진되는 상업특화가로와 연계되면 구도심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도



심 경관 개선, 구도심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산먼지 및 소음, 통행 등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안동경찰서 김기갑 경무과장, 등단 2년만에 시집 '가끔은 별을 바라본다' 출간

현직 경찰 간부가 등단 2년만에 시집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안동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는 김기갑(47) 경정이 주인공이다. 김 과장은 최근 시집 '가끔은 별을 바라본다'를 출판했다. 김기갑 시인은 안동 출신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했으며 2019년 대한문학세계에 '위로'라는 시와 같은 해 지필문학에 '코이'라는 수필로 등단했다. 24세의 젊은 나이에 경찰에 투신

한 김 과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정년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시 한편, 한 편에 삶의 강렬한 순간들을 포착해 담아 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들이 시를 음미하면서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나아가 마음의 여유와 위로까지 얻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면서 "은퇴 후에는 지금처럼 자연과 삶을 노래하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2의 삶을 꿈꾸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잘 것 없는 이 시집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보다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다. 오홍진 문학평론가는 김기갑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인 '가끔은 별을 바라본다'에 대해 "아주 소중한 역사철학적인 성찰의 결과며 그의 사유가 서정적인 아름다움으로 꽃 피어난 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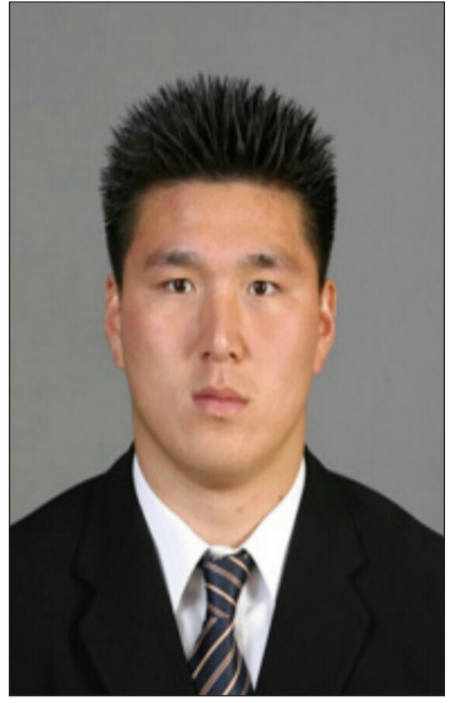
김세기기자



### 음성군청 이윤철 선수, 해머던지기 우승 쾌거

음성군청 소속 이윤철(40) 선수가 지난 20일 경북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5회 한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해머던지기 종목에서 67.97m를 던져 우승을 차지했다. 이윤철 선수는 61.42m를 던진 2등 선수보다 6.55m를 더 멀리 던지며 월등한 기량을 보여줬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윤철 선수가 전국 체전 20연패 달성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음성군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머던지기 한국 신기록(73.77m) 보유자인 이윤철 선수는 지난 2002년 제주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체전에서 18연패를 차지하며 해머던지기 종목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최만식기자



## 세종시체육회 오는 6월 9일 정식 법인 출범

### 법정법인화 창립총회 개최...활발한 체육행정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지난 23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법인설립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출연 승인(안), 주사무소설치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체육회(법인) 초대 임원은 관계 법령·정관에 의거해 2023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승계하게 됐다. 또한 법인으로 출범하는 시체육회

주 사무소는 현재 사무처가 위치한 세종시 가름로 232에 두기로 했다. 이날 창립총회를 마친 시체육회는 이후, 세종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거쳐 오는 6월 9일 법인으로 정식 출범한다. 시 체육회는 그동안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재산권 행사 등 한계에 부딪혀왔지만, 이번 법인화로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조직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태봉 체육회장은 "이제 체육회가 법인으로 가는 첫 단추를 꿸게 됐다"며 "종전 임의단체에서 정식 법인이 되면 체육회의 지위 향상은 물론이고, 더 나은 체육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 거창군, 제5대 거창군축구협회장 이취임식



거창군축구협회는 지난 25일 K7 거창군리그 개막전에 앞서 거창군축구협회 이상일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제5대 거창군축구협회장 이취임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약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구인모 거창군수, 박규근 전임회장, 강철우 도의원, 신재화 군의원, 표주숙 군의원 등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상일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거창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거창 축구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4년간 거창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신 박규근 전임회장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어렵지만, 신임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상일협회장께서 거창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상일 신임회장은 마리면체육회장, 거창군축구협회 이사, 서부경남 축구심판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경남 축구심판위원회 감독관으로 활동 중이며, 전임 박규근 회장에 이어 거창군축구협회장으로서 거창군축구 활성화와 축구동호인을 대표해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광용기자

## 청주시청 김우진 도교올림픽 출전권 획득

청주시청 김우진 시장이 지난 23일 원주양궁장에서 종료된 2021년 국가대표 2차 평가전에서 종합배점 16점을 기록하며 종합순위 1위로 도교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김우진은 올해 세 번의 선발전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2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다. 남자부는 오진혁(현대제철), 김제덕(경북일고)이 각각 2위와 3위로 선발이 되었고, 여자부는 강재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학교), 안산(광주여자대학교)이 선발이 됐다. 올림픽 양궁 경기는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리게 되며, 신설된 혼성단체전을 포함해 총 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남자부는 여자부와 달리 외국 선수들과 실력 차가 크지 않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올해 기술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받고 있어, 내심 김우진의 3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김우진은 복차 목표인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해서 상당히 기쁘다"며 "남은 시간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올림픽에서 목표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 고양시 카페 '포레스트 아웃팅스', 사랑의 성금 1천만 원 기부

#### 코로나19로 힘겨운 이웃 위해 따뜻한 나눔 펼쳐

고양시 최대 신개념 정월원 카페 '포레스트 아웃팅스'(대표 현은정)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등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 23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포레스트 아웃팅스의 현은정 대표와 하동주 이사,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창원 회장, 시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성금 1천만원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골고루 전해질 예정이다. '포레스트 아웃팅스'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커피·베이커리·푸드 전문점으로 작년부터 저소득층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을 위해 마스크 14,000매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현은정 포레스트 아웃팅스 대표는 "평소 취약계층 아동들을 돕는 데 관심이 많았고 오픈 1주년 기념으로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 기부를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웃사랑을 위한 온정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나눔들이 모여 고양시가 시민중심의 행복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대구 중구 새마을회 제16대·제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대구 중구 새마을회는 4월 23일 봉산문화회관 가운데홀에서 내빈과 새마을지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1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2015년부터 6년 동안 중구 새마을회를 이끌어온 이형원 회장은 탁월한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새마을운동 전개에 앞장섰고, 2019년 대통령 포장 등을 수차례 수상하며 중구새마을회의 위상을 높였다. 제17대 신임회장으로 취임하는 권혁대 회장은 국제 라이온스 356A 5 지역 부총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서광개발 및 서진종합건설

대표이사, 대봉1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으로 재임 중으로,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직 회장님들의 활동을 본보기 삼아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회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한발 더 뚚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날 진행된 이·취임식 행사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사랑의 쌀과 봉사금은 중구청에 기탁하여 관내 소외되고 힘든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류규하 구정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의 정신인 생명·평화·공경의 가치를 통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류석/대기자

## 청학골 화재주택 신축에 도움 준 이들에 감사패

하동군 청암면은 평촌마을 최모씨(51)의 화재피해 주택 신축에 도움을 준 단체와 업체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패는 청암면이장협의회와 청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암면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화재주택 신축에 큰 도움을 준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 황상주 위원장, 건축환경 이대삼 대표, 오름건축사사무소 임경실 실장에게 주민을 대표해 전달됐다. 새 주택에 입주한 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주택 화재로 집이 전소되고 얼굴에 2도 화상마저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가족은 친척이 제공한 주택에서 생활해왔다.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보급자리를 잃은 안타까운 소식에 하동소방서와 하동군, 지역주민들이 주택신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우선 하동소방서와 하동군이 119회망의 집 건축보급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3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가족과 지역주민, 사회단체들도 주택신축에 후원금을 보냈다. 박재훈 시목이장과 시목마을회에서 각 100만원, 청암면새마을협의회, 청암면발전협의회, 몽양당 안영규 대표, 농협 하동군지부와 지리산청학농협에

서 각 50만원과 물품을 지원했으며, 청암면농촌지도자회와 취나물작목반 등 14개 단체에서 315만원을 후원했다. 그리고 한국토정정보공사 하동지사가 무료 측량, 건축환경이 500만원 상당의 화재 폐기물 철거 재능기부, 건축사사무소 오름이 주택 무료 설계와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행정처리를 지원했다. 황상주 위원장은 주택신축에 부족한 사업비에도 선뜻 공사를 맡았으며, 청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산불감시원 등 이웃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주변 환경정비 등 꾸준한 봉사 활동도 이어졌다. 관내 각계각층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1월 18일 착공해 지난 9일 방 3칸, 거실 겸 부엌, 화장실 1칸을 갖춘 66㎡(약 21평) 규모의 신축 주택 건립이 마무리됐다. 입주자 최씨는 "한순간의 재난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해 걱정스런 날들을 보냈지만 이렇게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웃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광용기자

## 대현동 원불교 대현교당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20포 기탁

황경은 교도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외로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정구 대현동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에 대한 온정을 베풀어 주십

에 감사드립니다. 후원물품은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잘 전달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원불교 대현교당에서는 여러 활동으로 이웃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번에 말린 백미 20포는 관내 어려운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영경기자

# 울산시립교향악단, 2021년 '제214회 정기 연주' '마스터피스 시리즈 2' 개최

## 30일, 지휘 니콜라이 알렉세예프·피아노 피터오브차로프 협연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제214회 정기연주로 '마스터피스 시리즈 2'를 4월 30일 오후 8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연주는 예술감독 겸 지휘자인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지휘와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공연은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인 '피델리오'의 서곡 '레오노레' 제3편을 시작으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54번과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39번 작품543이 연주된다.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은 고전적인 협주곡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져 낭만적인 피아노 협주곡의 환상곡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솔로 악기에만 치우치던 대부분의 협주곡과는 달리 관현악과의 일체성 속에 피아노의 아름다움이 풍부히 표현된 작품으로 낭만적인 향기

가 감돌아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곡이다.

휴식 이후 연주되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39번'은 모차르트 후기의 찬란한 "3대 교향곡(제39번, 제40번, 제41번)"중 첫 번째 교향곡으로 세 곡 가운데 가장 고전적이면서 우아한 기품을 지닌 곡이다. 특히 유려한 선율과 정연한 리듬, 다채로운 음색과 풍부한 울림이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조화는 가히 자연스러운의 극치라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협연으로 나서는 피아니스트 '피터 오브차로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영재아카데미',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우크라이나 하르키우국제블라디미르 크라이네 콩쿠르 1위' '제3회 국제영차이콥스키 콩쿠르 은메달' 등 다수 입상한 바 있다. 또한 '모스크바, 비엔나, 도쿄, 상하이, 서울'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연주 했으며 현



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연 입장료는 에스(S)석 1만 5,000원, 에이(A)석 1만 원이며, 회원 30%, 단체는 20%, 학생(초·중·고) 및 청소년증 소지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주는 코로나19 확산

#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 새로운 쉼터커뮤니티공간 마련

## 개인·단체 소규모 행사 및 전시·공연 가능, 6월 개관

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8억 8천만 원을 투입, 기존 문화예술의전당 유휴공간을 주민 자율 공간 및 오픈형 다목적홀로 조성하여 오는 6월 개관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계획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주민 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동 1층의 주민 자율 공간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오픈키친을 완비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소규모 행사 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안쪽에는 소규모 인원이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등 편의시설도 갖춰 회의 장소로도 이용 가능하다.

공연동 1층의 기존 향토전시실은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각종 전시 및



소규모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오픈형 다목적홀로 탈바꿈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소통의 장이 마련돼 주민 복지 및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욱/기자

# 청년 서예가 이정화와 협업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키 비주얼 공개

## '2021 서울 녹색미래'로 재탄생한 인왕제색도

5월 30일과 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의 이색 키 비주얼이 공개됐다.

이번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최종 선정된 2개의 키 비주얼에는 P4G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로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함께, '참여'와 '행동'이라는 P4G의 기본 가치를 담았다. P4G의 5가지 활동 분야(△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를 나타낸 픽토그램과, 한국의 자연을 대표하는 산과 운치 있는 서체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이번 정상회의를 대표한다.

2개의 키 비주얼 중, 특히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 정선의 대표작으로 한여름 소나기에 젖은 인왕산 바위의 모습을 대담한 필체로 재현한 작품이다. 국보 제216호로 등재돼 있을 만큼 압도적인 구성과 웅장함이 느껴진다. 여기에 최근 주목받는 한국의 청년 서예가 인중(仁中) 이정화 작가의 강렬한 서체가 더해져 전 세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행동력을 역동성 있게 표현했다. 특히 모두의 연대와 서로에 대한 포용을 기반으로 녹색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의지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필체로 표현되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번 작업의 계기에 대해 "먹색만으로 표현된 인왕제색도와 자연



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 '서예'를 전세계인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공감하고자 했다. 또한 P4G가 현재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회의인 만큼 최근 주목받는 청년 서예가인 이정화 작가와 함께 작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화 서예가는 이번 협업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아름다운 빛을 내는 먹색으로 이루어진 인왕제색도와 어울릴 수 있도록, 붓과 먹만으로 글씨를 완성했다"고 전하며, "환경문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닌 만큼 좀 더 단단하게, 그러나 핵심메시지는 부드러운 필체로 작업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본격 행동을 시작하는 첫해, 영광스러운 작업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P4G 키 비주얼 협업을 함께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정부기관과 기업, 시민사회가 연대한다. 현재 12개 중견국가(남아공, 네덜란드, 대한민국, 덴마크,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트남,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케냐, 칠레, 콜롬비아)가 참여하고 있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순희/기자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4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

## 퀸텟 로스 더블엠 'The Tango'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에서 상설로 진행되는 '4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를 개최한다.

'4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는 오는 28일 저녁 7시 30분 퀸텟 로스 더블엠의 'The Tango'이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퀸텟 로스 더블엠의 'The Tango'는 탱고를 '춤'에서 '감상'을 위한 누에보 탱고라는 장르로 격상 시킨 창시자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클래식과 재즈의 요소가 가미된 예술성을 갖춘 프로그램이다.

퀸텟 로스 더블엠은 아스토르 피아졸라 음악의 황금기였던 오리지널 퀸텟 버전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피아졸라의 주옥같은 명곡들과 생의 여정의 이야기들을 해설과 곁들여 공연하는 실력 있는 누에보 탱고 밴드이다.

바이올린, 피아노, 베이스, 기타 그리고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분신과도 같은 반도네온의 퀸텟 구성으로 매력적인 누에보 탱고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또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어린 시절부터 만년까지의 음악 속 생의 여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4월 문화가 있는 날 콘서트 퀸텟 로스 더블엠 'The Tango'는 5세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옷, 헌책 등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관람료 대신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기/기자



# "울산박물관에서 영화도 보고 역사공부도 하고"

## 28일, 전문가 영화해설과 함께하는 '사도' 상영

울산박물관에서 영화도 보고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영화해설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울산박물관(관장 신형석)은 4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맞아 28일 오후 2시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영화 '사도'를 상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영화 관람 전 전문가인 김아름 미디어트 대표의 영화해설과 역사 이야기로 관람객과 서로 공감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영화 '사도'는 학문과 예법에 있어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하는 영조와 아버지(영조의 바람대로 완벽한 세자(사도)가 되고 싶지만 진심을 몰라주는 아버지로 인해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사도세자)를 다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조선 왕실 가족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관람은 무료이며,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100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전문가의 해설과 영화 관람을 통해 시민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 구리문화재단, 기획전시 '아리아리·한글예술' 개최

## 한재준 작가, 구리시에 영감을 받아 특별히 제작한 작품 선보여

(재)구리문화재단(이사장 안승남)이 지난 4월 1일 구리아트를 갤러리에서 선보인 2021년 첫 기획전시 '아리아리·한글예술'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는 30년 넘게 한글의 예술성과 세종대왕의 정신을 연구해온 한재준 작가가 예술 작품으로 재창조한 새로운 한글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서울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인 한재준 작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미지화하여 평면, 입체, 조형물, 영상 등 여러 작품을 선보이며 한글의 미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시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재준 작가가 구리에 영감을 받아 특별히 제작한 작품도 공개된다. 그의 작품 '서 있는 여자'는 구리시 아치울 마을에 살았던 박완서 작가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올해 고(故) 박완서 작가 타계 10주년을 맞아 그의 미가 더욱 뜻깊다.

코로나19로 전시회 무대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도 꾸준히 관람객이 이어지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관람객들은 '한글의 미적 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전시였다'며 전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안승남 구리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글자로서의 한글만이 아니라 작품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놀이 요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는 다양한 한글을 감상하고 직접 체험하는

새다른 전시"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3일까지 구리아트를 갤러리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전 연령이 관람할 수 있다

최근수/기자



